

자녀의 공경과 부모의 축복이 만날때 (잠언 23장 22절 - 25절)

† 말씀 나누기

1.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서 먼저 떠오르는 부모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감사한 모습, 닳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이라는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뒷모습을 남기고 있습니까? 예배, 기도, 정직, 섬김의 자리에서 자녀나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3.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한 가지 결단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감사 전화드리기, 축복의 말 전하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가족 안에서 먼저 용서와 섬김을 실천하기 등 구체적으로 정해봅시다.

† 함께 기도하기

1. 공경과 청종의 기도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듣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며 늙고 쇠약해지신 부모님의 뒷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향해 축복의 언어를 심게 하시고, 자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2.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기도

우리 가정이 진리를 사고 팔지 않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거룩한 믿음의 뒷모습을 남기게 하시고, 자녀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 찬양하기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559장)



1. 사철 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랴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도입: 공경과 축복이 만나는 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행동뿐 아니라 말투와 태도, 습관까지 부모의 뒷모습을 닮아갑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아 잠언 23장의 말씀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과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삶을 함께 돌아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효(孝)는 단순한 혈연적 도리가 아니라, 눈앞에 계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세 가지 은혜

첫째, 자녀의 '칭종'과 부모의 '축복'이 만나는 가정이 되십시오

자녀가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은 법과도 같지만, 자녀가 자라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늙고 쇠약해지시면 어느 순간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쫓기듯 끊고, 걱정 어린 조언을 시대에 뒤떨어진 잔소리쯤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야 한다. 그리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청종은 말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듣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의 입술에도 믿음의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청종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언어를 그 입술 가운데 가득히 담아야 합니다. 자녀의 귀와 부모님의 입술이 믿음 안에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진리를 '사는' 자녀와 믿음을 '남기는' 부모가 되십시오

성경은 “진리를 사되 팔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를 산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노력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산다는 것은 진리를 얻기 위해 헌신과 대가를 지불할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저절로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보여준 귀한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 세상의 편법을 거절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삶, 죄의 유혹 앞에서 신앙을 헐값에 팔아넘기지 않는 삶이 바로 진리를 사는 모습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만이 아니라 믿음도 함께 물려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눈물로 지켜온 믿음과 신앙을 보고, 그 진리를 대가를 지불하여 사고 팔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진리를 행하는 '의로운 자녀'와 그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좋은 효도는 용돈을 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귀한 효도는 자녀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쁨의 기준도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와 직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할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기뻐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이 의로움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자녀가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결론: 믿음의 부모와 자녀로서는 은혜

자녀의 공경과 부모의 축복이 만날 때 가정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청종하는 자녀와 축복하는 부모가 함께 만나야 합니다. 진리를 사는 자녀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함께 만나야 합니다. 의로운 자녀와 그 의로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가 함께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천국에 계신 분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주일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로서 믿음의 뒷모습을 남기며, 자녀의 공경과 부모님의 축복이 만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